

지역 매아리

부안군,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기 수술비 지원

부안군이 한국 실명예방재단과 협업을 통해 안과수술로 시력회복 및 실명 예방이 가능함에도 수술비 마련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시력찾기 수술비를 지원한다.

백내장을 비롯하여 망막증 녹내장 등 안(眼)질환으로 안과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순위 지원) 안과수술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와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및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대상자 선정 후 수술을 원하는 병원으로 수술의뢰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서, 비위 예방자를 토크 가져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전입 중심관리자와 한자리에 모여 비위 예방에 대한 자율 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전입은 중심관리자와 비위행위 없는 고창서를 계속 이어가고 다짐하는 한편 소속 기능 직원들과 빠른 시일 안에 화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입 민원실장 천광중 경감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자칫 비위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마음을 다잡고 각자 맡은바 임무에 집중하면 비위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재 서장은 "조직의 중심을 잡아주는 관리자들의 의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전해줌으로서 전 직원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경찰서, 업무유공자 표창

부안경찰서는 업무유공 경찰관에 대한 표창이 24일 이동민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침입 절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유공으로 강력 팀 김효종 경장에게 경찰서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동민 서장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인을 검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안경찰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정읍시, 62억원 투입 아스콘 덧씌우기·노후 교량 등 보수·보강 등 추진

정읍시가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목표로 62억원을 투입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교통 혼잡 지역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교량 보강 보수와 노면 요철 정비 등에 나서는 등 치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2억원을 들여 제설작업과 동결 용해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의 기능 회복에 나선다.

시가지 도로(3km)를 비롯 군도 24호선(태인 태창리~태서리) 700m 등 8

개 구간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보수를 진행한다.

노후 교량·터널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에도 20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과 터널 등 10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정동교 등 9개 교량 보수공사와 과교압제교 보수·보강 공사도 추진한다.

시는 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민진을 기용한다는 방침이다.

11억1000만원을 재원으로 차량 방호 울타리 등의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 표지판, 노후 탈색 방지턱 재도색 공사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5억5000만원을 들여 인도 기능이 저하된 인도 정비와 개설에도

나선다.

시부산업도로(하북동)와 전북과대학 교 주변 등 4개 도로의 인도를 정비하고 정일여중 주변 등 3개소에 인도를 개설할 계획이다.

교통사고가 잦은 과교 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에도 주력한다.

2억원을 들여 과교가 혼잡한 과교삼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원활한 통행을 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 군도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관련 민원해결(1억원)에도 적극 나서 시민 모두가 불편하지 않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노년활력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건강 관리 앞장

정읍시보건소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적극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정읍은 65세 이상 인구가 24.3%로 초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는 이처럼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우울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년활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경로당 10개소를 늘려 읍·면·동지역 거점 경로당(20명 이상 모이는 곳) 60개소를 선정했다.

보건소는 이들 경로당에서 기초

건강 검진(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빈혈 등)과 함께 노년교실, 치매 예방을 위한 발마사지, 토탕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도 마련,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건강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한다. 또 지역 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뇌졸중 예방을 위한 경동맥 검사와 미세단백뇨 검사,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 검진도 갖는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년활력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 ☎063-539-6082)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도시가로망정비사업 60억5천만원 투입

쾌적한 도로환경 마련·교통 불편 해소 도모

고창군이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해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올해 60억5000만원을 투자해 △국도 23호선~농어촌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고창읍 천변북로 개설공사 △무장소재지 도로개설공사 △교촌마을 회관 뒤 도로개설공사 △국로변 이면도로 개설공사 △해리면소재지 도로개설공사 등 6개소를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도로의 정비를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교통체증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무장면 소재지 교통광장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장에 29억원을 투자해 모두 준공했으며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군은 올해 추진계획인 국도23호선~농어촌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

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와 함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도시가로망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고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읍면에 미개설 된 도로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설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시

대형 할인매장·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 180여개 업소 대상

정읍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 내 대형 할인매장과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모두 18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복도와 시 담당공무원, 농, 수산물 품질관리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또 2개 읍면동은 자체단속반을 편성, 지도 단속에 나섰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대상은 할인매장, 전통시장, 농수산물 판매도·소매업체 및 가공업체, 음식점 등이다. 또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산물, 지역 특산물 등이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의 허위 또는 혼동 우려 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품 문갑 판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거나 참조기·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사법처분 대상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마련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함께 설 명절과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 중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3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지역경제와 내에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설성수품과 생필품, 돼지갈비와 개인 서비스 등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수급 상황과 1일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매점매석,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중

점 단속한다. 또한 지역 소비자 단체와 함께 건전한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자율적인 캠페인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간부 공무원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 동향과 부당한 가격 인상을 점검하도록 하고 상인회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관리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고 은누리 상품권 구매에 동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